

# 법학전문대학원이 불러온 변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출범 이후 '법조인 2만 명' 시대를 새롭게 열었고 '국제화'와 '다양화'를 외치며 솔한 오해와 편견에 맞서 싸워왔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 대학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누구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취재 김현기 · 이현주 · 조범진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 로스쿨 7년, 대학가 '60년 그림자' 걷어낸다

## 사시로 왜곡된 대학 교육의 정상화 이끌어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 시험 존치 문제는 역설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의 진폭이 크고 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는 그동안 대학 교육의 비정상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이른바 고시족들에 의한 대학 교육의 비정상화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물며 '고시폐족'이라는 사회문제가 함께 계층 간 갈등의 요인으로 사법시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로스쿨 제도가 가져온 대학 교육의 정상화 흐름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효과 중 최고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신분 상승의 사다리라는 차원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와 계급을 만들어 냈다. 고시촌과 고시족이 생기고 고시 결과에 따른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한 것 이상으로 가장 큰 사법시험의 폐해는 고시 출신에 의한, 고시 출신을 위한 '그들만의 세상과 그들만의 리그'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 과도한 고시 문화, 대학 교육 비정상화 초래

하지만 이러한 폐해 속에서도 사법시험을 보기 위한 고시족들이 계속 생기면서 대학가의 풍속도 역시 변화하고 뒤틀러 왔다. 지금은 다소 약화되거나 모습조차 볼 수 없는 곳이 많지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각 대학에는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만의 모임이 있었고 대학 내 고시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고시 열풍이 대단했다. 또한 학교 역시 고시 합격자가 몇 명이고 합격을 알리는 현수막이 많이 걸릴수록 좋은 대학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따라가면서 대학 교육은 그야말로 비정상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소재 K대 정치외교학과 C 교수는 "과거에는 남학생들이 군대를 다녀온 후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는 신입생 때부터 고시 준비에 나서는 학

생들이 많아져 놀란 적이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전공 공부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강의 전반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강의에 빠질 때가

잦거나 강의에 들어와도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사례가 많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학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제는 그런 일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소재 J대 경영학과 K 교수는 "지방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의 편입 열풍과 함께 가장 거센 열풍이 사법시험이었고 특히 이 지역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많이 배출된 곳이다 보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며 "전공 수업 중에도 고시 관련 책을 꺼내 놓고 공부하거나 밤새 고시 공부를 한 후 정작 전공 수업 시간에 졸거나 지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로스쿨이 학내에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밝혔다.

로스쿨이 가져온 대학가 변화의 주요 현상은 이처럼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로스쿨 분산 설치에 따르는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편중의 심화를 깨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을 사법 체계에 가져오고 있다는 점과 법학·비법학 쿼터제에 따라 대학 학과 전반의 내실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까지 한 달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총 1만410명은 102곳 대학 출신인데 비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은 40곳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 숫자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 숫자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통신대·학점은행·독학·사이



버대·평생진흥원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은 57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인 19명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로스쿨이 출신 대학의 다양성과 함께 사법 체계 전반으로의 진입 통로 확대 개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자승자박(自繩自縛) '사법시험', 존치 힘들 것으로 예측

특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SKY 편중과 관련해 이번 조사에서 전체 사법시험 합격자 중 약 58.81%인 6119명이 SKY 출신이었던 것과 달리 로스쿨 내 SKY 점유율은 46.8%인 487명으로 나타났고 예전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10개 대학의 점유율 역시 78.81%인 사법시험 점유율보다 9.01% 낮은 69.8%의 로스쿨 내 점유율을 보여 출신 대학의 다양성을 로스쿨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의 '2015학년도 로스쿨 입학자 현황'을 보면, 올해 로스쿨 입학생 2084명 중 로스쿨법에 따라 입학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법학 계열 출신은 44%인 917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상경 343명(16.5%), 사회 334명(16%), 인문 239명(11.5%), 공학 101명(4.8%), 사범 42명(2%), 자연 36명(1.7%), 약학 11명(0.5%), 의학 9명(0.4%), 예체능 및 농학 각각 7명(0.3%), 신학 4명(0.2%), 기타 계열 34명(1.6%)으로 나타나 로스쿨의 법학·비법학 쿼터제가 대학 학과 전반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낼

로스쿨이 가져온 대학가 변화의 주요 현상은 이처럼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로스쿨 분산 설치에 따르는 이른바 SKY 편중의 심화를 깨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을 사법 체계에 가져오고 있다는 점과 법학·비법학 쿼터제에 따라 대학 학과 전반의 내실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 있다.

반면 반론을 제기하는 교수들도 있다.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대학 평가에 취업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만연되고 있어 로스쿨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인 출신 대학의 다양성과 학과 교육의 내실화 역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실험과 실습 비중이 높은 자연과학 및 공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 교수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로스쿨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관심 있는 교수들도 의견을 말하길 꺼렸다.

이와 달리 남다른 시각에서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교수도 있다. 서울 소재 지역학부 L 교수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가 정치권에서 비롯됐고 급기야는 외무고시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과거 세력들이 총선 등 대형 정치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연출되는 느낌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논란이 정리되기보다 더 확대되거나 오랜 시간 지루한 소모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 교수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지난 60년간 사법시험 체계는 변화를 등한시해 왔고 그 결과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가져오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이자 해결책으로 시작된 로스쿨 제도에 대해 지난 60년간의 잣대로 이런저런 평가와 수준의 높고 낮음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여론 물이에 나서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법시험 폐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시 존치론 측이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로스쿨 역시 이번 상황을 계기로 변화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법진 기자 cbj68@naver.com



## 지방 로스쿨 승승장구 '막을 자가 없다'

높은 합격률 및 취업률, 수준 높은 커리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등 결과물 선보여

한 야당의원 자녀의 취업 특혜 문제로 불거진 로스쿨 사태는 급기야 정치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로스쿨의 폐해를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의 일탈된 행태가 로스쿨 전체를 매도하는 데 이용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100%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불완전성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도나 정책 안에서 방법론을 찾는 것이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법시험 아래에서 집중됐던 일부 대학의 고시 합격자 독점 현상이 로스쿨 제도로 크게 완화되면서 이른바 세력 균형의 중요한 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대 로스쿨의 약진 현상은 빈틈조차 없을 것만 같던 사법계의 파벌 문화에 신선한 충격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 시행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시 폐지 반대론자들은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도 SKY 편중 현상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 같은 편중 현상을 적시하면서 로스쿨 제도가 과연 사법시험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고 있다.

### 서울대 등 유명 로스쿨과 어깨 나란히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철칙처럼 '편중'이 아닌 '균형'을 강조하고 있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시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 제도가 펼치고 있는 균형의 실질적인 사례와 결과물은 지방대 로스쿨의 약진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높은 합격률과 취업률, 수준 높은 커리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등은 바로 지방

대 로스쿨 약진의 결과물이며 이것이 다시 피드백돼 지방대 로스쿨 발전에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로스쿨은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몇몇 지방대 로스쿨은 서울 소재 로스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본지가 로스쿨 출범 6년을 맞아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 담당자에게 로스쿨 출신 인재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종합 순위와 사립대 로스쿨에 대한 결과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교 로스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 순위 10위권 내에 부산대 로스쿨이 7위를 차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지방대 로스쿨의 약진 현상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다면 지방대 로스쿨의 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대 로스쿨의 순위 상승을 예상하는 근거는 몇몇 지방대 로스쿨의 두드러진 약진 현상 때문이다. 우선 지방대 로스쿨 중 가장 눈에 띄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곳은 영남대 로스쿨이다. 영남대 로스쿨은 지난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 전국 2위의 합격률을 기록하더니 올해 치러진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합격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와 함께 영남대 로스쿨은 졸업생 취업률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90.9%의 취업률을 보였던 1기 때보다 2기 때는 91.8%의 취업률을 기록했고 3기 때는 96.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해 명실상부한 대표 로스쿨이라는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은 부산대 로스쿨이다. 지난해 본지의 조사에서 지방대 로스쿨 순위 1위와 함께 종합 순위 7위를 차지했던 부산대 로스쿨은 올해에도 그 명성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부산대 로스쿨은 '아웃풋'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제4회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로스쿨 졸업생 중 신입 검사와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인원 중 부산대 로스쿨은 검사 2명과 재판연구원 8명 등 총 10명을 배출해 총 18명을 배출한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이화여대와 함께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취업률에서도 부산대 로스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4명의 제3차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87명이 취업에 성공해 92.6%의 취업률을 보였다.

한편 호남 지역의 대표적 우수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불리는 전남대 로스쿨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지난 4월 발표된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 개

**실제로 25개 로스쿨 가운데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로스쿨은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몇몇 지방대 로스쿨은 서울 소재 로스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원 이후 최다인 총 1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과거 전남대 법과대학의 명성을 이어 간다는 호평을 지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또한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법관 및 군법무관 임용과 경찰의 경감 특채 등에서 잇따라 두각을 나타내 지방대 로스쿨 약진 현상의 대표 주자 중 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경북대·충남대·전북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약진 현상은 로스쿨 출범 7년을 맞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고시 존치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반작용 효과와 함께 충분한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지역 인재 발굴·육성 크게 기여

로스쿨 제도의 또 하나의 강점은 지역 인재의 발굴 및 육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올해 실시된 로스쿨 등 지방대학의 지역 할당제는 지방대 로스쿨의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 재능의 환원이라는 취지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역 할당제가 실시되면서 로스쿨 입학에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지역 할당제 초기여서 인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어 수험생들이 높은 기대와 함께 지원 시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고민도 깊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할당제의 비율 유지를 대학에 맡기기보다 실효성 극대화 차원에서 임의적 노력 차원이 아닌 실제적인 비율 유지 또는 20%인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할당제에 따른 지역의 우수 인재들의 로스쿨 진입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지역 인재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된다면 지역 할당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비판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범진 기자 cbj68@naver.com

# ‘국회에서 병원까지’ ... 종횡무진 로스쿨 변호사

## 설립 취지에 맞게 다양성과 전문성 살려 활동하는 졸업생들

로스쿨이 도입된 지 7년이 흘렀다. 3년의 교과과정을 마친 로스쿨 1기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치른 후 사회로 진출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다양한 활약상을 지면에 담아봤다.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9월 10일 시작됐다. 올해 국감은 9월 10~23일, 10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첫날인 10일 국방부에서 국방위 국감이 열렸다. 해당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실 이영준(31·변호사 시험 1회) 비서관은 전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다.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이 비서관은 평소 법에 애착을 갖고 법조인을 동경해 왔다. 그런 그가 법조인의 길을 걷지 않고 험하기로 소문난(?) 국회 비서관직을 선택한 것은 다소 의외였다. 이 비서관에게 물었다. 왜 그런 험난한 길을 걷게 됐는지.

### 국감 준비에 여념없는 비서관...아기를 살려낸 변호사

“우연한 기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입법 활동의 중심인 국회라는 곳은 법조인으로서 매력적인 기관이 아닐 수 없다”며 “더욱이 먼발치에서만 보던 국회의원이란 존재를 경험하면서 더 큰 성공과 미래 속에서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이 비서관은 답했다.

국감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비서관은 주말도 반납하고 연일 야근 중이다. 국감 대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분석,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비서관은 “수십 년씩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정부 부처 분들을 상대해 예상이 낭비되거나 비위 사실 등을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렵고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좋은 분들도 만나 친분을 쌓기도 하고 또 찾아낸 문제점들이 보도 자료나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비서관직의 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존의 법원·검찰청에서 벗어나 병원·금융당국·경찰청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

력에 대해 말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덕에 죽을 뻔한 아기가 살아난 일도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박다래(33·변호사 시험 1회) 변호사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집안사람들은 치료할 형편이 아니라며 선뜻 치료에 나서지 않았다.

보다 못한 박 변호사가 설득에 나섰다. 가족들은 아기를 포기하려고만 했다. 끝내 설득이 통하지 않자 박 변호사는 법을 내세워 가족과 의료진에게 엄포를 놓았다. “단지 재정적인 이유만으로 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살인 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아기는 무사하게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에서 로스쿨을 마친 박 변호사는 현재 의료 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조언해 주는 역할을 비롯해 각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가 없던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병원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싶다”면서 “법적인 조력은 병원, 더 나아가 의료 분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문화방송의 자회사인 MBC아트에서 근무하는 이하림(30·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는 대학 시절 언론인을 꿈꿨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MBC아트는 문화방송에서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세트·의상·분장 등을 관장한다. 회사 특성상 저작권을 비롯해 제작사와 하도급 업체들과의 계약 및 분쟁이 잦은 편이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으로서 사전 법률 검토를 맡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전남대 로스쿨 2기생으로 졸업한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타인의 인생으로 도박을 하는 자 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 말을 듣고 내게는 단지 하나의 사건, 당장 제출해야 하는 서면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일이다’, ‘내 가족의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양하고 전문화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본래 다니던 직장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로스쿨 문을 두드리 변호사가 된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유희(37·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는 법조인이 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 검사를 담당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관련 법규의 적용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일이 많은 곳이다. 연세대에서 법학을 전공해 그나마 동료들에 비해 법을 좀 아는 그였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실무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로스쿨을 진학하게 됐다.

정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 졸업 후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

왔다. 복귀 당시 신용카드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모든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국제화·다문화 시대에 맞춰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특허청에서 근무하는 오성환(38·변호사 시험 1회) 심사관(5급 사무관)은 이 같은 설립 취지에 딱 맞아떨어진다.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오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 강의경연 대회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경력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전자통신 및 전자회로 분야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심사하고 있다.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그에게 적합한 업무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해 특허법과 특허 제도를 주관하는 부서인 특허심사제도과에서 특허법 개정 및 특허 제도 개혁 업무도 수행했다. 당시 그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특허법 및 관련 논문, 외국 제도,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하는 등의 업무를 소화해 냈다.

오 심사관은 “법학 실력은 선배 변호사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공학적 지식과 지식재산권 지식을 특기로 삼아 다른 변호사들이 잘 모르는 공학적 지식 등을 많이 물어왔다”며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장점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계기로 더욱 전문 변호사로서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예 업(業)을 바꿔 변신한 이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는 송영선 경감(40·변호사 시험 1회)은 법조인이 되기 전 국내 한 벤처기업에서 재무관리와 개발 보조 업무를 담당했던 연구원이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나온 송 경감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기업 변호사를 희망해 원광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딘 그는 국민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6개월 정도의 연수 기간을 거치면서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

송 경감은 “민사 변론주의 구조 아래에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고민이 들었다”며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근로감독관들을 보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의 구현과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지게 돼 경찰 변호사 특채에 주저 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

# ‘로스쿨로, 로스쿨로’... 사회적 약자들의 진격

## 꿈이 현실로 이뤄져, 315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

집안 형편이 어렵지만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김현아(가명) 씨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주변으로부터 “가난하면 꿈조차 꾸지 말라”는 비아냥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 결과 2009년 국내 소재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했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 마침내 꿈에 그리던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뇌병변장애를 갖고 있는 박성제(가명) 씨는 2011년 특별 전형으로 국내 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예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박 씨는 입학 후 3년 내내 장학금 혜택을 봐 학비를 전액 면제받았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아 사법시험과 같은 기약 없는 공부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였다. 하지만 로스쿨에서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 특별전형·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통해 적극 지원

사례로 언급한 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일부 지원 받은 덕분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 전형’이란 입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로스쿨이 출범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 전형으로 18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총 484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 6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농어촌 지역 출신자가 24명, 국가유공자 15명, 소년소녀 가장 3명, 복지 시설 경력자 2명, 한 부모 가정 및 북한 이탈 주민이 각각 1명 있었다.

이들은 로스쿨을 마친 후 일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회에 나와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4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에서 특별 전형으로 입학해 법조인이 된 이들의 사회 진출 현황을 보면 2012년 50명, 2013년 37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세부기준별 입학인원		단위 : 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76	농어촌지역출신자	24
소년소녀 가장	3	한부모가정	1
복지시설 경력자	2	국가유공자	15
북한 이탈주민	1	장애인	62

자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 : 2009~2013년

명, 2014년 38명이 검사·재판연구원·법무법인·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치러진 제4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특별전형 출신 총 75명이 역경을 딛고 합격해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다. 현재까지 특별 전형으로 선발된 입학생들 중 제1~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는 모두 315명이다.

이들에게 경제적 지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별 전형 입학생 및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학업과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정부와 학교가 나서 이들이 바라던 꿈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

법무부 법조 인력과는 변호사 시험 고사장에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응시생을 위해 특수 제작된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한다. 또한 시험 시간도 일반 응시자에 비해 2배 정도 넉넉하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한다.

서울대 로스쿨은 장애 학생을 위한 여러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서관 내 장애 학생 전용 좌석은 물론 전용 휴게실을 따로 마련해 휴게실 내 점자 프린터와 스캐너, 독서 확대기 등 특수 장비를 비치해 놓고 있다. 학습을 돕기 위해 대여용 노트북 20대, 특수 키보드 3대, 휴대용 확대 독서기 6개 등 다양한 기자재도 확보해 놓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및 공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필 및 타이핑 지원, 이동 지원, 수업 보조 등과 같은

학습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 통역, 강의 자료 및 강의안 제공 그리고 강의 녹음도 허용한다.

고려대 로스쿨은 본교 학생처 산하에 장애학생지원부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고려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2009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에서 실시한 장애인 학생 지원 체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생활 지원, 학습 지원, 특별활동 지원으로 구성돼 있고 각종 전용 기기도 지원해 주고 있다. 장애 학생 전용 컴퓨터, 이동식 스크린, 헤드 마우스, 화상 확대기, 점자 프린터, 전동 휠체어 등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갖춘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은 수강 신청 단계에서부터 수업 및 시험(평가) 단계까지 장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제도화했다. 장애 학생 도우미를 붙여주며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을 고려해 점자 컴퓨터, 독서·휴대용 확대기를 구비해 놓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 학생은 전동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다. 법학 전문 도서관 본관에 승강기 3개와 리프트 2개를 갖추고 있고 도서관 지하 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도 지정해 차량 4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

인터뷰 | 장영재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사업팀장·변호사

## “변호사로 일하며 1000명의 장애인 치료하고 싶어”

해마다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공기업만큼 안정적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들이 바라는 ‘꿈의 직장’을 박차고 나와 ‘자신만의 꿈’을 꾸는 이가 있다.

올해 32세인 장영재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특별 전형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기로 입학했다. 2013년도 제2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사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랐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입사해 진로를 고민했다. 내게는 목표를 계량화해 놓은 세부 목표가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장애를 가졌거나 질병을 가진 사람 1000명을 수술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급여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변호사가 되면 0.001%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공기업에 다니며 편하게 살라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게 됐다.”

### 로스쿨 진학 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

“근로복지공단 기획법무팀에서 근무했다. 기획법무팀은 대정부·대국회 업무를 수행하고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법대 출신이어서인지 산재 소송 사례집을 편집하는 업무와 산재 소송 소장들을 분류해 각 지사로 보내는 업무를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산재 판례와 재결을 볼 수 있었고 산재 관련 소장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 이 일을 통해 과거 사법 시험을 준비하며 볼 수 없었던 현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패소가 명백한 사건의 소장엔 기재된 변호사 이름, 변호사가 유능했다면 산재로 인정 받았을 만한 판결, 영성한 논리의 과발개발 자필로 쓴 소장들을 볼 수 있었다. 도끼를 들고 민원실을 찾아온 산재 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다.”

### 로스쿨 진학을 꿈꾸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원손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 놀림거리가 돼 봐서인지, ‘나는 왜 태어난 걸까?’, ‘무슨 이유로 이런 못난 원손을 갖고 태어난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 등과 같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10대 청소년 시절 막연히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했지만 2009년 제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포기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기약 없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떠올

### 로스쿨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았는가.

“[학교는] 일정 평점만 넘으면 등수와 상관없이 장학 혜택을 준다. 일정 평점이란 것이 그리 높지 않아 성실히 공부하면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최근 상대평가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것마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학기 중 5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았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학기는 성적도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 5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원해 준 한양대에 고맙다.”

### 로스쿨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취업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작은 로펌에서 일을 시작했다. 관참은 급여와 좋은 파트너 변호사님과 일했고 최소 3년 이상 승무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쉽지가 않고 가끔이지만 하기 싫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 보니 회의감이 들었다. 그러던 중 장애인인권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어느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불현듯 몇 주 전에 본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 구인 광고가 떠올랐다. 그런데 빈자리가 없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구인 광고가 뜨자 ‘내 자리다!’ 싶은 확신이 들어 곧바로 퇴직했다. 그런데 그대로 백수가 됐다(웃음). 다행히도 경기도 장애인 인권센터에 빈자리가 나 인연을 맺게 됐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로스쿨은 돈스쿨?...실질 등록금은 최저”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 대학 다양해, ‘권력 분산’ 효과 검증

로스쿨 도입 7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돈스쿨’, ‘부의 대물림’, ‘실력 없는 법조인 양성’ 등의 오명을 쓰기도 한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사법시험은 가난한 학생이 도전하기 힘든 시험이지만 로스쿨은 비용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출신 대학도 더 다양화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라며 “사시 존치에 대해서도 작은 나무가 아닌 전체 숲을 보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9일 서소문에서 오수근 이사장을 만났다.

### 로스쿨 출범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시원이나 절에서 혼자 공부했다면 로스쿨 이후로는 교실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교육과 학습 활동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죠. 다른 학문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유독 법학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고등문관시험 이후 오랜 기간 법은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어요. 예상 문제와 답안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 온 것이죠.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이제 한국에서의 법률가 양성은 로스쿨을 통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낮설어했지만 7년 사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리를 하면서 로스쿨을 통한 법률가 양성 과정이 정착돼 왔습니다.”

###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안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로스쿨의 가장 큰 슬로건이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입니다. 1995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 넘게 논의했고 그때 나온 보고서만 1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역사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나온 제도가 아니고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당시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었고 그때 큰 방향이 교육을 통한 양성이었습니다. 그럼 점에서 안착했다고 봅니다. 향후 교육의 수준을 더 높이는 일이 필요하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단, 교육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로스쿨이 안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전혀 다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교육을 통한 양성이 중요합니까.

“필기시험으로 평가하는 것과 필기 이외의 다른 요소로 평가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은 전문적 지식, 의사소통 능력, 성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다 빼고 1년에 한 번 보는 필기시험만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교양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는 묻지 않아요. 로스쿨에서 학생들은 교과목마다 발표·토론·팀플 등에 다함께 참여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해 성적을 받죠. 그 과정에서 필기시험으로는 평가되지 않는 여러 역량과 품성을 갖춰요. 전인적 인간을 기대한다고 할 때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학교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변호사 시험은 현재 정원의 75% 수준을 합격 인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부 기관의 시험을 두지 않더라도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줄 수 있게 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목표에



서울대 법학 석사, 동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시간대 대학원 비교법학 석사, 숭실대 대학원 법학 박사, 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2014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2015년 제 6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현).

서범세 기자

100% 도달하겠죠. 지금은 제도적으로 그 점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례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이 변시 합격에 도움이 되는 공부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전공과목을 공부한다거나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한 소양 함양에 시간을 쓸 수 없게 되죠. 합격률을 낮추는 것은 그래서 로스쿨 취지를 저해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격률이 계속 낮아질 것이냐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시험 보는 일은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로스쿨 3년 동안 약 9.5% 학생들이 유급되든지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 포기합니다. 바람직한 거죠. 전에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면 법전원에 들어오면서 단계별로 걸러지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 한 번,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또 한 번, 학기별로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변호사 시험에서 걸러집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소수의 정해진 인원만 1년에 한 차례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비하면 지금의 로스쿨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로스쿨 등록금도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사립대는 고비용 구조로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등록금은 학생과 학교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는 고비용이 맞아요. 애초에 교육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신청을 받을 때 등록금 환원율을 45%로 설정했어. 교육비 중 반절은 학교에서 부담하라는 거죠. 로스쿨을 신청할 때 비용 부담이 싫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도 고비용이 힘들다고 하면 반납하면 돼요. 그것은 개별 대학이 선택하는 겁니다.”

###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돈스쿨’로 불리기도 합니다.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로스쿨이 1년에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데, 25개 대학 중 2000만 원이 넘는 곳은 세 학교입니다. 법학전문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1년에 1500만 원이예요. 이 중 37%가 다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실질 등록금’은 1년에 894만 원인 거죠. 의학전문대학원의 실질 등록금 1229만 원의 70% 수준입니다. 경영전문대학원은 1698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문대학원이라고 하면 자기 돈을 들여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을 통해 나중에 갚아나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질 등록금이 의학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900만 원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담이 크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불러온 변화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장학금 정책은 다르게 쓰겠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100명 중 37명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좋은 제도입니다. 국공립 10개 학교는 장학금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평균 연 1000만 원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국공립학교를 가면 되는 거죠. 즉, 등록금이 비싸 못 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안 나와 못 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로스쿨에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구당 연소득을 조사해 보니 서울대와 이화여대를 포함해 학생의 20%가 2000만 원이 안됩니다. 부자만 다닌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이런 걸 모를 리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죠. 반면에 2000만 원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최소 연간 1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가구당 연소득 2000만 원이라면 마음 놓고 고시 공부를 못합니다.”

**사법시험은 전통적으로 ‘계층 간 사다리’로 불렸습니다.**

“그건 1970년대 얘기고요. 한국의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면서 이미 1980년대만 들어서도 ‘개천의 용’은 거의 탄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시험은 ‘선수용’입니다. 당연히 좋은 대학 학생들이 시험을 더 잘 보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법시험이 열려 있다고 해서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제로 전수조사해 표를 만들었는데, 사법시험 시절에는 한 명도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했다가 로스쿨에 합격생을 낸 대학이 50개가 넘습니다. 교육을 통해 단계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로스쿨을 나오면 얼마나 다양한 학생들이 변호사로 배출되니까.**

“재미있는 통계를 들게요.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사법시험으로 한 해 30명을 뽑았습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100명을 뽑았어요. 거의 다 서울대 학생들이었어요. 요즘 대법관이 왜 서울법대·남자·50대로 분류되었습니까. 그 당시 대부분 서울대 학생들만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순으로 프로 선수들만 가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합격자 배출 학교도 늘어났어요. 2002~201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30.52%, 고려대가 16.42%입니다. 2011~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을 보니 이 수치가 내려갑니다. 각각 30.52%에서 17.83%로, 16.42%가 14.98%로 조사됐어요. 10대 대학 점유율이 사법시험 시절엔 전체 84.66%입니다. 그런데 로스쿨 이후 학교마다 리트(언어이

해·추리논증·논술), 영어 면접, 자기소개서 등 전형 방법을 달리 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이 배출됐고 10대 대학 점유율이 75%로 10% 포인트 내려갑니다. 특정 대학 학생들이 독점하지 않고 전국 여러 대학으로 흩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일부에서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뒷배’를 이용해 입학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점 하나는 찾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대입만 하더라도 과거 학력고사 하나로만 평가했다면 지금은 논술·내신·특기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대학에 들어가고 있죠. 이미 수시가 70%, 정시가 30%입니다.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에서 다양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기업에서도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만 유독 하나의 전형으로 뽑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서 1년에 단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당락을 결정해 왔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방법이 좋고 만족스러웠다면 계속 고수하면 되는데, 왜 논란이 일고 로스쿨이 도입됐겠습니까. 그렇게 뽑았더니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단적으로 다른 국가 법률가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유학 시절 도서관 서가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태국의 법 서적이 서가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딱 한 뼘, 한국의 법 서적이 그것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공부 잘하면 다 서울 법대 가고 사법시험 봤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소리 들으면서 법률가가 됐을 때 뭔가 국가에 기여해야 하는데, 한국 법률가가 한국 사회에 그 정도로 기여했느냐는 거죠.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 내놓는 수준의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한국 변호사들이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다 할 수 있다면 누가 시시비비를 걸겠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로스쿨 출신들은 세계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 변호사들이 갖는 역량이 너무 한 쪽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변호사들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외교, 통상 교섭 등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활약하는데 한국 변호사들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필기시험으로만 승부를 보고 송사에 집중된 법률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부 시절 자신의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경제학과 학생도 1학년 때부터 법률 책만 보는 거예요. 이쯤만 경제학과지 경제학을 하나도 몰라요. 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한 후

로스쿨에 들어간 사람과 독학을 통해 변호사가 된 사람의 역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식의 사시 존치 주장이 최근 핫 이슈입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애기하면 때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1995년부터 논의한 내용을 입법화한 결과가 사시 폐지입니다. 사법시험의 폐해가 너무 크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애기로 한 것인데, 그 사이 사법시험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존치하면 서울대 중앙 도서관 1층 자유 열람실은 법전으로 뒤덮일 겁니다. 전공 불문, 1학년 때부터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는 이른바 ‘고시 망국’이 재현되는 것이죠. 또 국가 운영 철학의 본질로 들어가면 국민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한다는 약속이었고 그것을 믿고 로스쿨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상해 줘야 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약속으로 지켜야 합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명문 로스쿨에만 채용 기회가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먼저 판검사 임용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대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적어도 판검사 임용에서 특정 대학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 공공기관 채용에서 특별히 지방대를 차별하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다만 대형 로펌은 소수 몇 대학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로펌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취업률이 92.62%인데 학교 간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역 간 차이보다 남녀 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75학번입니다. 입학 당시 연 30명을 뽑다가 졸업할 때 100명을 뽑으니 실력 없는 사람이 뽑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기시험이 갖는 맹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등은 70등보다 우월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시 100등한 사람이 30등 한 사람보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질 등록금이 의학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원의 900만 원 수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담이 크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맞지 않는 애깁니다**

다 실력이 덜한 법률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기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한정돼 있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렸다 줄였다 했던 때가 있습니다. 대법관이나 검찰총장은 많이 뽑았던 시절에 나왔습니다. 로스쿨 출신에서 많이 뽑으면 쪽정이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게 뽑아야 인물이 나온다는 생각은 필기시험이 갖는 한계라고 봐요.”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수가 크게 늘면서 취업 경쟁이 심각해지자 화살이 로스쿨로 쏠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에게 좋고 누군가에게 나쁩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좋은 일입니다. 블록마다 의사가 있으면 좋은 거죠. 몇 명을 배출하는 게 좋으냐는 문제는 복잡한 이슈이지만 확실한 것은 공급자 쪽은 나쁘고 수요자 쪽은 좋다는 겁니다. 논의를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변호사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곧 로스쿨 입학 설명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에 오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할 사람이 갖춰야 할 품성·책임감·정직감 등이 필요하고 점점 더 분석력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야든 자기 분야 공부를 잘하고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변호사 시장이 다른 전문가의 서비스 시장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법률가들이 너무 송무에만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이 용기만 있으면 법률적 소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사법시험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달라졌고 이전 세상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햇발질’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와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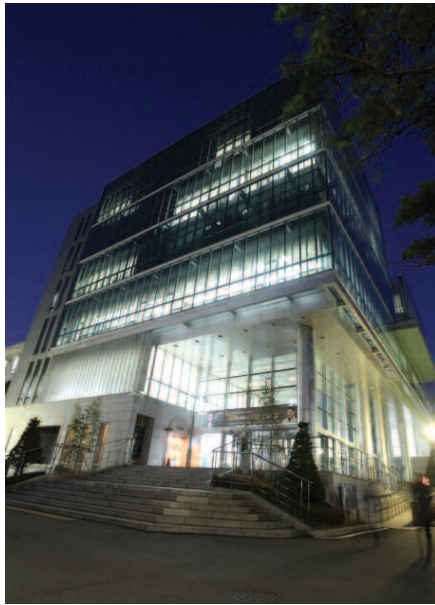
이현주 기자 charis@hankyung.com

#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시자 대비 60%대...  
설립 취지 고려해 80%는 유지돼야

출범 7년 차를 맞이한 로스쿨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중 하나는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가는 변호사 시험(이하 변시) 합격률이다.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을 치렀을 때 합격률은 무려 87.15%였다. 시험에 응시한 로스쿨 1기생 1655명 중 1451명이 시험을 통과했다.

로스쿨 2기생을 배출한 2013년도에는 합격률이 10% 넘게 하락했다. 제2회 변시 합격률은 75.17%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표된 제3회 변시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60%대로 주저앉았고 올해는 간신히 60%대 턱을 넘겨 체면을 차렸다. 이처럼 합격률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이전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예비 법조인들이 곧바로 치른 초시 합격률도 동반 하락 추세다. 2013년도까지 80%대를 유지해 온 초시 합격률은 지난해 76.81%로 떨어졌다. 올해 초시 합격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 추세로 보면 전년 대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스쿨로서는 변시 합격률이 80% 이상 되길 희망한다. 그래야 설립 취지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2014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조인 수는 2012년 기준 1만9946명이었다. 2013년 로스쿨에서만 1538명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져 나와 마침내 '법조인 2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갈수록 낮아지는 합격률은 로스쿨 지원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일부 로스쿨이 문을 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돈과 시간을 투자해 로스쿨에 진학하고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낭인'을 양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지난해 10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 결정을 적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스쿨 원장들이 말하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입학해 한 분야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문 법조인을 배출해 내는 것이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매년 변호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합격률이 떨어지다 보니 학생들도 시험에만 매몰돼 있다"며 "(로스쿨이) 원래 지니고 있었던 전문 분야의 특성화 교육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영성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시 "로스쿨의 원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학생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며 "저조한 합격률은 학생의 문제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 원장은 이어 "현재 변시는 말만 자격시험이지 선발 시험과 다를 바 없다"면서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면 일단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경쟁은 있기 마련인데 이것을 두려워해 본질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고 덧붙였다. ☞

김현기 기자 henrykim@hankyung.com